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달성을 위한 절반의 시간

Column



통계개발원장 송준혁 / 경제학 박사

2023년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 8년째가 되는 해로 목표 시점인 2030년까지 절반의 시간이 지났다. 지속가능발전이란 제한된 자원으로는 무한한 경제성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경제성장 및 사회안전이 환경 보전과 조화를 이루게 해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자는 개념이다. 유엔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향점으로 SDG를 제시하는데, 이는 전 세계가 2030년까지 공동으로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분야, 23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어느 누구도 뒤처지게 하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라는 원칙하에 유엔 SDG는 빈곤, 교육, 성평등, 기후변화, 보건, 경제성장 등 사회·경제·환경 관련 의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 의제들이 각국의 제도와 정책의 수립으로 이어진다.

최근에는 기업들도 SDG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제품 개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 혁신과 재생에너지 투자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이러한 노력은 ESG 경영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기업가치 평가에서 투자 수익률 등의 재무적 영역과 더불어 비재무적 영역에서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역시 중시되는 추세이다. 지방정부도 지역적인 수준에서 SDG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이 반영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지자체별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도시와 주거 환경 개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SDG 데이터 책임기관으로서 매년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를 발간한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육·불평등·기후·생태계 분야에서 SDG 이행 지체 현상이 관찰되었다고 한다. 비대면 수업으로 발생한 교육 공백 탓에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크게 감소했고, 탄소중립 선언 이후에도 온실가스의 감축 속도는 더디며,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은 4.7%로 저조한 편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연구원 수, 폐기물 재활용률, 보건대응역량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 고위공무원 수, 재생에너지 비율 등에서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계청은 국내 28개 지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범정부 ‘SDG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통계 데이터 가용성 및 신뢰성 향상에 정진해 왔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현재 231개 지표 중 183개(79%) 데이터만 이용이 가능하다. 미국, 일본, 영국 등에 비해 가용성이 높긴 하나 성평등, 기후위기 등을 통합적·균형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직 6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식량, 에너지, 인도주의 및 난민 관련 위기를 불러왔으며, 산불과 가뭄 및 홍수는 이미 세계인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지구 생태계에 크나큰 피해를 주고 있다. 계속 상승하는 해양 수온은 해양생태계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으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어린이 및 기타 취약계층이 소외와 빈곤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불안 및 우울감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국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SDG를 달성하려면 긴밀한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울러 SDG 17개 목표에 대한 국가별 이행 현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지표 데이터 관리 및 통계정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고품질의 세분화된 데이터는 현황 파악과 함께 미래 사회의 요구 사항 예측을 가능하게 돕는 등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설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난해 SDG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통계청의 역할이 신설됨으로써 SDG 이행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확충되었고, SDG 데이터 국가책임기관으로서 통계청의 위상이 강화되었다. 또한 최신 기술이 활용된 지표 개발 등 혁신적 SDG 지표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한 국가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기반이 마련되었다.

올해 통계개발원에서는 기후, 환경, 도시 등 SDG의 분야별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위성 영상 자료, 격자 기반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활용된 지표 생산 연구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남은 절반의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줄이며 더욱 힘을 기울인다면 목표 시점인 2030년 내에 SDG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